



廣北醫大同窓會報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발행인 : 조종수

편집인 : 정낙진

Dec. 25. 1986. 제3호

동 동문, 그외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각동문들과 그 가정에 끊임없는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1986년도 총회 성황

1986년도 정기총회 및 Dinner ball을 지난 11월 15~16 양일간 Atlantic City Sands Casino Hotel에서 120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Dinner, Dance, Gambling, Golf 등 잊지 못할 멋진 주말을 보냈습니다. 스탠준 학장배 및 동창회장배 쟁탈 Golf 대회에서는 N.Y.의 이정두 동문(66) 및 Mrs. 임병우(60)께서 최우수상을 땀습니다.

조종수 회장 인사

1986년도 저물어가고 닥아오는 X-mas와 새해를 맞이하여 미주동문 여러분 가정에 만복과 희망이 깃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일년동안 동문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으로 우리 동창회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고 서로의 긴밀한 유대와 친목을 유지해 왔습니다. 올해로서 21회의 발족 연령을 갖게된 미주 동창회는 역대 회장님과 그 임원진들의 많은 노고와 동문들의 적극참여와 협조로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온 장학회는 해마다 모교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각분야에서 수련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고 의학잡지를 끌고루 각부서에 보내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성의가 앞으로 길이 계속되며 동문 상호간의 상부상조로서 모교 발전은 물론 미주동문의 유대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번창의 길로 매진하기를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주 동창회를 위해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규택 선생님의 은퇴하심에 그 공로를 높이 받들어 동창회에서 감사패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Atlantic City Sands Casino Hotel에서 미주 동창회 총회를 갖도록 수고하여 주신 부회장 심재훈 동문, 금년 일년동안을 물심 양면으로 동창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총무 박상태 동문, 재무 이중희 동문, 도서 박희도 동문, 장학 노재문 동문, 그리고 수차례 걸친 회보 및 명부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낙진 동문, 총회 Golf대회를 성대하게 이끄신 위원장 박현

최중식 차기회장 인사

최회장님, 동문 그리고 귀빈 여러분. 작년 11월 회장으로 선임 되었다는 통고를 받았을 때는 제가 십자가든지 게 되었다는 부담감과 당황스러움이 저의 마음을 지배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회장의 임무는 회원의 누구나가 말아야 할 의무이고, 동시에 회원이 가질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임을 생각 할때 저에게 이 영예를 갖게 해주신 회장단 및 대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65년 처음 창설되어 20여년의 연륜을 쌓은 이 동창회는 그동안 동창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모교의 시설확장 및 개선, 도서의 기증, 교수 해의 연수 등의 팔목할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같은 치하 받을만한 업적을 이룩할수 있었던 것은 우리 회원 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는 물론이려니와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들의 공헌의 결과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한편 이 20년 동안에 동창회 전체의 발전에 못지 않게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우리들 자신의 면천을 간과해서는 안되었습시다.

십, 이십년전의 대부분의 우리는 일개 수련의에 지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으며 사회적인 지위는 커녕 우리는 어느쪽 대륙에서 살게 될지조차도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다만 젊음과 용기, 그리고 장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뿐이었습니다. 그때의 동창회는 동문 상호간의 수련을 위한 정보교환과 주선, 직장 알선 및 불안정한 우리 입장에 대한 moral support 등, 지금은 우리가 잊어 버렸지만 그때로선 중요하고 절실한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모두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존경 받는 지위를 이룩했습니다만, 또 한편 우리들 연륜이 늘 어남과 함께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염려를 해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사회적 위치와 장래에 대한 전망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오늘에 와서는 우리 동창회의 목적과 목표도 달라져야 만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동창회는 어떻게 존속해야 하며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동창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답이 다음 10년 20년의 동창회가 걸어야 할 방향을 지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회답을 추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도 임원

총 무	이 정윤	(1964)
재 무	정 근영	(1966)
회원위원회	정 태진	(1970)
기획위원회	이 정두	(1966)
공보위원회	노 재문	(1962)
	박 태룡	(1976)
학술위원회	노 대식	(1962)
회칙위원회	강 경훈	(1960)
장 학 및 도서위원회	오 창열	(1952)

**= 이 규택 선생님께
감사패 증정 =**

의학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은퇴하시는 이 규택 선생님께 그간 우리 동창을 각별히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따뜻한 정에 감사하여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 1988년도 동창회장에
김 연호 동문 =**

54년도 김연호 동문을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88년도 회장에 선출했습니다. 김연호 동문은 현재 Maryland의 North Arundel Hospital 에서 Radiology Dept. Chief로 활약중에 있으며 Golf는 부자간에 Single hand입니다. 88년에는 수도 Washington DC. 에서 상대한 모임을 가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1987년도 총회는
New Jersey 에서 =**

10월 23~25 3일간 New Jersey의 Glenpoint Hotel 에서 개최키로 예정 하였으며 그 일정은

- 10월23일 : 대의원 총회
- 10월24일 : Golf 와 Tennis
- 10월25일 : Class-reunion

동등 가장 상대한 잔치를 베풀고져 전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라집니다.

= 지부 소식 =

NEW YORK

11월 8일 정기 임원회를 가지고 내년도 지부회장에 임병우 (60) 동문을 총무에 박현동 (62) 동문을 선출 했습니다. 모교 박희명 교수께서 New York을 방문하시고 9월 19일 고향식당에서 40여명의 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옛 사제간의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CHICAGO

12월12일 경북대학교 및 의과대학 합동 송년회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으며 내년도 의과대학 지부회장에 이영남 (64) 동문을, 부회장에 김태우 (67) 동문을 총무에 김태우 (72) 동문을 선출했으며 12월 5일 남편따라 떠나시는 강반 (63) 동문의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강반 동문은 University Hospital of Kentucky in Lexington의 Allevgy Section Chief로 영전했습니다.

MICHIGAN

12월 6일 Kings Inn에서 지부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김경수 (63) 동문을, 총무에 전인식 (67) 동문을 선출하였으며 매마침 방미중이시던 김순용 교수 (현 한양대학교의 대교수)를 모시고 즐거운 환영회식을 하였습니다.

= 동문회 =

동문 수필

사는 맛이랴든가, 휘파람을 한번쯤 불어보게 신바람을 내어 불만한 생활의 멋이라든가.....

도무지 그런것엔 거리가 멀기만한 내 남편에게 한조각 그런것들이 찾아 온 적이 있다. 바로「경북의대 64년 동기회」오로지 연명(延命)에 코가 빠져 세월만 착실히 죽이여 세상에 설치는 일이라곤 만고에 없는 사람인데도 22년만의 첫모임이어서인지 몇달전부터 마음들며 하는양 보이드니 ... 늦은 장가에 어쩌다 얻어 걸린 젊은(?) 잠보 마누라를 흔들어 깨워서는 그것도 만나기로한 하루전 새벽 세시부터 장장 14시간 drive길을 나섰다.

운전대만 잠으면 마누라 바가지는 이례없이 시작되기 마련이고 거기다 반마디도 마누라쟁이 말이라면 아예 듣기를 거부하는 지독히도 변할줄 모르는 남편이건만 그날만은 어찌 고분고분 그 멀고 긴 길을 한번의 쯤그림 없이

달렸으니 아마 이민길 12년만의 최고로 기분좋은 여행이
었나보다.

“야! 임마 너 학교때 그대로 하나도 안 변했다”고 감
탄을 해가며 툭툭 치는 내 남편 모습을 보며 킁킁 나오려
는 웃음을 간신히 참아야만 했다. 두눈을 닦고 보아도 서
로의 모습들이 중년은 진작에 넘은 반백의 중노인네(?)
로 변해 있던 학교때 그대로라니? 육년을 하루같이 비
비적 된 여의사 동기분 보고 각듯이 Mrs. 누구신가요?
옆에선 또 “문디자수 지랄해 팔는다” 객지에선 감히 입벌
려 지끄려 볼 용기조차도 없었거니와 되도 않는 꼬부랑
말에 주눅이 들려 다만 그리움으로 입가에 맴돌든 그 정
감있는 어휘들……

엄마 아빠들보다 모두 훌륭히 자라나는 동문들의 자식
들 모습도 왠지 자꾸 고향에 두고온 조카 같이럼 기록하
고, 대견하고, 귀엽기만 했다.

토요일밤의 파티는 미리 잘 준비해 주신 고재명 동문
님 덕택에 춤이며, 풀러간 옛노래며, 여담들로 이팔청춘
가시내 머슴애들 마냥 시끌썩 떠들며 쌓이고 쌓인 삶의
찌뜨기들을 웃음으로 씻어 낼수 있어서 좋았으며 멋과 흥
에 겨워 정신을 잃도록 퍼 마셔진 술맛으로 거나해진 내
남편의 모습을 훑쳐 보느라니 어찌 그 재미없던 내 남편
같지를 알았다. 모든 시름 다 잊고 밝게 웃으며 열심히
떠들어대는, 요즘 세상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따뜻한
분위기와 이해타산 없는 순수한 교감들. 어찌다 딱딱뜨린
내 남편의 개슴츠레한 눈초리로 보아선 산다는 일이 매냥
쉽기만 하여 만사에 칠칠치가 못한 칠딱서니 없는 마누라
도 사랑스럽게 봐주고 있는듯도 같았다. 마지막 밤엔 해
어지기 못내 아쉬워 삼삼오오 방마다 모여 새벽 세시까지
두런두런 그리고는 새벽 6시에 또 golf 치는 그 정력들.
세상살이가 새삼스러이 하루 아침에 활기가 차고 멋이 있
고 천성이 무뎛뎛해 산다는 일에 늘상 심드렁해 보이는
내 남편도 그날따라 유난히 행복해 했고 내눈을 깜빡여
의심하도록 어찌나 근사해 뵈었는지 —

새삼 큰 황제라도 한듯 뭐라싸도 시집하나만은 맹을 잡
아 간것 같기도 했으니 「64년 동기회여 해마다 오래오래」

64년 흥창의 동문

Mrs. 홍

= 주소 변경 =

송 종은 (60)
106 Old Wentworth Pl.
Battle Creek, Mich 49415
(616) 979 -4321

강 자구 (62)
7 Elm Court
Sands Point, N.Y. 11050
(516) 883 -2783

여 용연·강 반 (60·63)
2716 Matinigue La
Lexington, Kn. 40509
(606) 299 -7532

김 한주 (65)
1330 S. Finley #2D
Lombard, Ill 60148
(312) 620 -8716

고석정 (65)
4308 Woodwick Ct.
Fort Worth, Tx. 76109

안 정홍 (66)
747 Azolea Dr.
La Grande, Ga. 30240
(404) 882 -6000

송 문목 (60)
1603 Dallas Ave.
Artesia, NM. 88210
(505) 746 -6733

구 본철 (70)
3200 Warrensville CTR Rd.
Shaker Hgts, OH. 44122

최 영식 (71)
Angola and Fawnhill Rd.
Cornwall, N. Y. 12518
(914) 534 -8050

지 용백 (73)
21 The Commons
Lockport, N. Y. 14094
(716) 433 -7095

김 정균 (76)
135 East Main St. #11 K
Westbord, Ma. 01581

권 용수 (59)
3306 Suncrest
Danville, Il. 61832

근 조

김 상범 동문 (58)께서 숙환으로 지난
10월17일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비오며 남겨진 가족들에
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 주소 불명 =

김재형 (60) 최성홍 (67) 신기동 (69) 백성옥 (70) 안홍구 (71) 서현주 (77) 김영숙 (81)
김영훈 (65) 서성택 (68) 최봉준 (69) 김신근 (71) 이달우 (73)

새 주소물 하기 이정운 동문 (총무) 에게 알려 주세요.

Dr. J. Lee
378 Gravel Hill Rd.
Smoke Rise, N.J. 07405

Happy New Yea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41-55 Bowne Street
Flushing, N.Y. 11355